창립일 1967.9.17. | 제59권 45호. 2026.11.8.

* 지난주 강단제목 : 레위기의 율법들과 단번에 끝낸 그리스도 (레 11:45, 히 9:12)

(1부) 오전 8:30 · 인도 : 심한결 목사, 설교 : 정윤돈 목사
(2부) 오전 11:00 · 인도 : 박범서 목사, 설교 : 정윤돈 목사

★ 입례송	오르간
★ 예배의 부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 응답송	찬양대
★ 예배선언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 신앙고백	사도신경(새번역) / 다같이
★ 경배의 찬양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같이
★ 고백과 용서의 말씀	설교자
★ 주기도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주기도송) / 다같이
★ 성시교독	67. 잠언 3장 / 인도자와 회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 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네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13-21)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26)

찬송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 다같이
중보의 기도	(1부) 양경심 장로 (2부) 임근일 장로
성경봉독	이사야 53:5(구약 1034쪽), 빌레몬서 1:11-16(신약 351쪽) / 인도자
찬양	(1부) 예수가 거느리시니 / 시온찬양대 (영상) (2부) 주는 나의 포도나무 / 시온찬양대 (현장)
말씀의 선포	**완전복음 안에서 완전치유된 그리스도의 제자들** **-복음으로 여는 빌레몬서-** / 설교자
봉헌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 다같이
교회소식	설교자
★ 결단의 찬송	예수 전하세 / 다같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 전하세
사단의 왕국을 깨뜨린 왕의 왕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주의 주
죄에서 해방하신 어린 양 예수 감사하세 찬양하세 증거하세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 전하세

★ 파송의 말씀	설교자
★ 봉헌기도 · 축도	정윤돈 목사

다음 주 기도 : (1부) 최칠규 장로 (2부) 이은숙 장로

★ 표는 일어서서 · 경건한 예배를 위하여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부서예배

유치부	오전 11:00	인도, 설교 : 이현규 목사 · 장소 : 3층 제2램넌트실
태영아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이현규 목사 · 장소 : 3층 제1램넌트실
어린이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박범서 목사 · 장소 : 1층 비전홀
중고등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심한결 목사 · 장소 : 5층 참사랑홀
대학청년부	오후 3:30	인도, 설교 : 박범서 목사 · 장소 : 5층 참사랑홀

* 매월 마지막 주 주일은 어린이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연합으로 예배드립니다. (장소 : 5층 참사랑홀)

수요기도회

시간 : 오전 10:30 / 오후 7:30 · 장소 : 1층 비전홀

기도	(오전) 이은희 권사 (오후) 고진순 권사
인도, 설교	(오전) 김양순 목사 (오후) 이현규 목사

다음 주 기도 : (오전) 임예진 권사 (오후) 김승훈 집사

금요심야기도회

시간 : 오후 8:00 · 장소 : 1층 비전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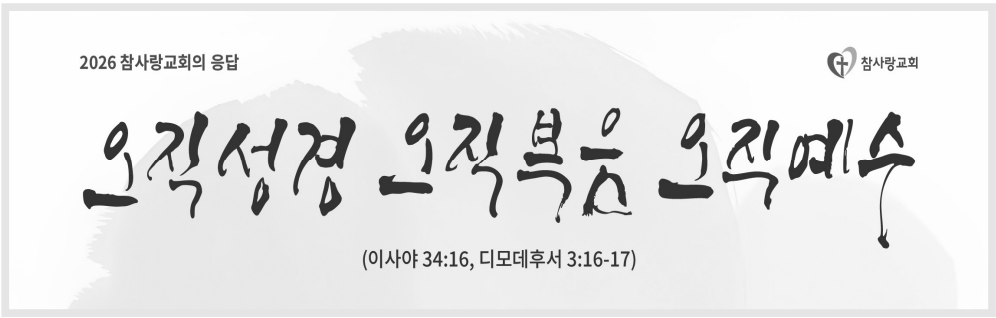
기관보고	예배국
설교	심한결 목사

다음 주 기관보고 : 관리국

새벽기도회

월~토 새벽 5:30

(월) 심한결 목사 (화) 이현규 목사 (수) 이현규 목사
(목) 박범서 목사 (금) 박범서 목사 (토) 심한결 목사



교회소식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주 주일 오전 10시 20분부터 10시 40분까지 4층 당회실에서 새가족교육이 진행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친절히 신앙생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교회소식

1. 다음 주 주일(11월 15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간이 되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헌금은 본교회 일반헌금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일반헌금 : 신한은행 100-013-769840 (참사랑교회)
   • 입금하실 때 반드시 이름과 헌금명을 함께 기록해서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예 : OOO 추수)
2. 추수감사절(11월 15일) 세례식을 위한 세례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담당 : 박범서 목사)
3. 각 부서에서는 오늘(기관총회)까지 차기 임원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이번 달부터 진행될 본교회의 연말 일정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 기관총회, 11.9 연말교역자회의, 12.13 연말당회, 12.20 청지기임명, 12.27 졸업예배/예결산위원회, 1.3 연말제직회, 1.10 공동의회)
5. 복음요절 암송과 구원의 길 그리기를 통해 300영접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1층과 5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6. 예배시간과 헌금안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일오전예배 - 1부 : 오전 8시 30분, 2부 : 오전 11시. 장소 : 5, 6층 참사랑홀
   2) 수요오전예배, 수요오후예배, 금요심야기도회 / 1층 비전홀
   3) 매일 새벽기도회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녹화하여 새벽 5시 30분에 전체 소통방에 올라갑니다.
   4) 주일 각 부서의 예배시간입니다.
      (1) 오전 11:00~12:20 유치부 (2) 오후 2:00~3:20 태영아부
      (3) 오후 2:00~3:20 어린이부, 중고등부 (4) 오후 3:30~4:50 대학·청년부
      (5) 매월 마지막 주일은 오후 2시부터 램넌트부서 연합예배로 드려집니다.
   5) 다락방 및 지교회 모임은 시간을 정하셔서 줌이나 전화통화, 유투브를 통해 라이브나 녹화를 하여 양육과 교제와 말씀포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토요일에 헌금을 아래의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입금하실 때 이름과 헌금명을 함께 기록해서 입금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 참사랑교회)
      (예 : OOO주정 / 반드시 한글기준 7글자 이내)
      • 일반헌금 : 신한은행 100-013-769840 - 주정, 십일조, 감사, 절기, 차량, 기타헌금 등
      • 헌당헌금 : 신한은행 100-022-072886 • 장학헌금 : 신한은행 100-033-576780
      • 선교헌금 : 신한은행 100-033-576822 • RUTC헌금 : 신한은행 100-035-010731
      * 헌당, 장학, 선교헌금, RUTC헌금을 제외한 헌금은 일반헌금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 기관 및 교우소식

1. 성도 가정의 장례캠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슬픔당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양순옥 권사(임선규 집사, 임예진 권사) 부군 - 故 임경순 집사님 / 11월 6일 소천)
2. 교역자의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돈 담임목사 : 11.9 연말교역자회의, 11.10~11 제10차 아시아산업인대회)
3. 대학입학시험(11월 19일 목요일) 일정을 치르고 있는 수험생 램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서, 김도연, 안지훈, 문성원, 김민주, 심성하, 김주원, 양승우, 황세희 / 명단에 누락된 분은 교역자실로 알려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4. 군과 해외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주보 14면에 있습니다.)
5. 교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권사, 김원일 집사, 이영경 집사, 이순덕 권사, 박숙자 집사, 김춘례 권사)

■ 참사랑 RUTC소식 (정치, 경제, 문화, 보건, 복지, 과학, 예술, 체육, 예능, 교육, 군경, 공무원)

1. 금토일시대를 준비하는 참사랑 RUTC 램넌트의 활동신청을 받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및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체카톡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예교실 : 한 달에 1번(토요일) 10시, 2층 식당. (모집 중)
   2) 트럭킹체조교실 : 당분간 운영중지. (담당 : 정수환 집사 010-5527-6067)
   3) 스키&스노보드 : 동계. (담당 : 박찬열 집사 010-8760-0756)
   4) 탁구교실 : 매주 토요일 11:50분, 2층 로비. (담당 : 최혜숙 권사 010-9430-9862)
   5) 수묵캘리그라피 : 첫째, 셋째 토요일 19:00, 2층 식당. (담당 : 김순호 장로 010-8630-4414)
   6) 기타클래스 : 매주 토요일 14, 17, 19시, 4층 당회실. (담당 : 이명 장로 010-2222-7624)
   7) 축구&풋살 : 한 달에 1번. (담당 : 김승훈 집사 010-2098-3141)

8) 트리니티찬양교실 : 첫째, 셋째 수요일 14:30분, 3층 제2렘넌트실. (담당 : 임예진 권사 010-6225-9661)
9) 취미그림교실 : 첫째, 셋째 토요일 17:30, 2층 식당. (모집 중)
10) 복음영어클래스 : 주일(성인) 19시, 토(RT) 3:30분, 1층 초등부실. (담당 : 주은경 권사 010-9542-8212)
11) 드럼클래스 : 매주 토요일 6, 7시, 5층 참사랑홀. 8시 1층 비전홀. (담당 : 김승훈 집사 010-2098-3141)
12) 피아노&기초음악이론 : 개인별 레슨 진행. 4층 찬양대실. (담당 : 이석 집사 010-5067-1426)
13) WIO스마트팜 : 비정기적 열린 포럼 진행.

2. 연기, 연극, 영화, 방송, 뮤지컬 팀을 모집합니다. (담당 : 박범서 목사 010-6335-3719)
3. '서예교실'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문의 : 이현규 목사 010-9736-3556)
4. 피아노&기초음악이론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심한결 목사 010-8206-2024)
   1) 강사 : 이석 집사. 2) 레슨방법 : 주1회 1시간(개인레슨). 3) 레슨장소 및 시간 : 4층 찬양대실, 요일 협의.
   4) 레슨비(4주 기준, 1인당) : 피아노 10만원 / 기초이론 6만원. 5) 모집인원 마감 때까지.
5. 취미그림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김순호 장로 010-8630-4414)
6. 성악 발성반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김희권 장로 010-2334-6713)
   1) 강사 : 김희권 장로. 2) 레슨장소 : 4층 찬양대실.
   3) 레슨방법 : ① 매주 화요일 오후 2~4시(회비는 참석할 때마다 1.5만원).
   ②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오후 12시 30분(회비 : 월 6만원).
7. 자격증 상담(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생활체육지도사 등)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하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원격평생교육원 (문의 : 최영경 팀장 010-6777-8692)

■ 훈련 및 집회소식 (해당되시는 분들이나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매주 토요일 산업선교(오전 9시), 전도학(오전 9시 40분), 핵심예배(오전 10시 30분)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본교회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층 비전홀에서 핵심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드립니다.)
2. 중직자대학원 강의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본교회 3층 제2렘넌트실에서 있습니다.
3. 제10차 아시아산업인대회가 '그 흐름 속에 있는 제자(롬16:25-27)'를 주제로 11월 10일(화)부터 11일(수)까지 싱가포르에서 진행됩니다.
4. 제23차 2026 여교역자수련회가 '복음의 본을 보여주는 자들(살전1:1-7)'을 주제로 11월 16일(월)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5. 237화요제자훈련이 11월 17일(화)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11월 행사 및 일정

구분	본교회 일정 / 세계복음화전도협회 일정
1주차	237새가족현장사역자훈련(3, 덕평 RUTC), 제48차 치유사명자대회(6~8)
2주차	기관총회(8), 연말교역자회의(9), 세례문답식(14) / 제10차 아시아산업인대회(10~11, 싱가포르)
3주차	추수감사주일(15) / 제23차 2026 여교역자수련회(16, 덕평 RUTC), 237화요제자훈련(17, 덕평 RUTC), 렘넌트데이(21)
4주차	RCA(25~28)
5주차	렘넌트부서연합예배, 참사랑집중선교사훈련원(29) / 중남미 전도집회(12.1~3, 콜롬비아)

11월 봉사위원 안내

구분	봉사위원
헌금위원	(위원장) 양경심 (위원) 김금남 라종화 신승훈 박희영 양경아 이정미 임소순 임혜연 박주은 이영경
성찬위원	(5층) 임근일 최칠규 이은숙 최신혜 이미자 김금남 최진희 박영인 (6층) 유승범 김순호
안내위원	(위원장) 임근일 (1층) 양경심 김경희A (5층) 최신혜 이은숙 유경선 고진순 (6층) 이정미
주차안내	안수집사 전원

기도제목

■ 연간 기도제목

1. 참사랑교회를 통하여 지역복음화를 위한 3천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2026년도는 '오직성경'안에서 '참진리'를 발견하고, '오직복음'으로 '참치유'를 누리며, '오직예수'로 '참구원'을 증거하는 참사랑교회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2. 우리 총회를 통하여 민족복음화를 위한 40만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마르틴 루터, 존 칼빈의 개혁주의 신학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교리에 기반한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속해 있는 참사랑교회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성경적인 신학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총회와 협회와 노회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3. 한국교회를 통하여 237나라 5천 종족,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1천만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 2026년 참사랑교회 '실천목표 기도문'

"참사랑교회 실천목표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가운데 전도자, 제자, 증인의 응답을 앞당기게 하소서"

(1) 주일강단메시지 성취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2) 복음요절을 암송하여 생명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3) 성경 1독, 성경 쓰기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4)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그리기를 통하여 전도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5) 300영접, 30다락방, 3지교회를 통하여 성경적 전도운동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6) 5인 1조의 팀을 형성하여 전문교회 지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7) 나의 237나라와 나의 선교사를 찾아 선교의 비밀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8)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현장에 참사랑RUTC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9) 유튜브 10분 복음소식을 통하여 비대면 생명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10) 복음컨텐츠 제작을 통하여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구축되게 하옵소서.
(11) 300전도캠프 현장이 지속적으로 열리게 하옵소서.
(공원, 병원, 커피숍, 학교, 역, 직장, 쇼핑센터, 노인정 등)
(12) 금토일시대에 사실적인 3가지 뜰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1) W.I.O 협동조합 (스마트팜, 인공지능, 로봇, 생명, 우주)
2) 치유시스템 구축 (중독, 정신, 영, 건강)
3) 예체능 협동조합 (스키, 체조, 탁구, 축구, 악기 등)
4) 고령화시대준비 (100세 묵상요가, 120세 모세건강법)
5) 복음적인 교육복지 시스템이 모델적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13) 70나라 여행캠프를 통하여 세계선교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14) 70나라에 병원, 약국, 묵상 등 영혼, 정신, 육신 치유의 절대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15) 참사랑전도학교, 참사랑집중전도신학원, 참사랑집중선교사훈련원, 참사랑핵심(주일)을 통하여 부흥의 응답을 주옵소서.

헌당을 위한 헌신

70인 요원 (24명) /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계3:12)"

김경수-강승자-김대식 최정웅-전정아 유경형-라종화 주재잔-권혜경 김경환-최복순 전인숙-김원일 김경화 임근일(양은숙) 신승훈(박영인) 박점순 정연규(이은숙) 김종복(한명희) 박지영

300인 용사 (132명) / "내가 ...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 주리니(삿7:7)"

정윤돈 최신영 양은숙 박영인 윤두영 강창숙 최봉식 최신주 박동영 최진희 오국환 이은희 조남은 이은옥 최영철 최후순 최명홍 이계옥 구자성 송영희 허경열 홍승희 박희순 이수용 이미자 유승범 주은경 이영순 박염재 양경심 강현자 김영길 박혜숙 김석재 손혜옥 여동훈 백소정 서정례 박철남 이상춘 서희석 나향님 이승재 심주환 김현숙 이용곤 김경희 송길호 최신혜 채용민 이효숙 오신자 정세완 박희영 정수환 최송화 박준민 황인선 주철우 정선희 권은희 민경환 이명재 구윤진 배형석 박인자 여상훈 노선희 김요셉 김혜정 김남숙 정민호 이서은 최양호 오난희 장성순 박난순 김순자 김 헌 임경미 박범서 김진아 김미선 최칠규 한영화 장영호 여준석 김성열 김순호 배승찬 배명자 신옥희 김태운 이남현 오영숙 정향란 강요한 윤홍광 임혜연 박광현 박성혁 이신순 이희숙 왕진상 김선옥 김종남 김주영 김영진 변연숙 윤소화 김성순 김요한 백순덕 김금남 김복님 임영순 김옥천 김순이 서성원 박서진 이현주 최영애 김선희 강경현 장경희 유경선 정년영 양순옥 공영호 박봉기 박준석 이영희

지난주 하나님께 드린 예물

주일헌금	정윤돈 최신영 최정웅 전정아 박범서-김진아 심한결-정지혜 이현규-김수진 전인숙-김원일 김정엽 유경형 라종화 주재잔-권혜경 이수용-이미자 오국환-이은희 정연규 이은숙 여동훈-백소정 박동영-최진희 최명홍-이계옥 정세완 박희영 신승훈 박영인 김 한-임경미 김경희 배승찬-이 명 양경심 임근일-양은숙 최칠규-한영화 여준석-양경아 최신혜 김금남 유승범-주은경 김영잔-최혜숙 김순호 이명재-구윤진 강현자 정년영 송영희 오신자 김계자 이정윤 이순덕 강공이 김희권 김미자 이순근 유제숙 문성원 호민수 김일호 김재규-장소녀 최송화 김하윤 박인자 김순자 최재경 임영순 김용관-김정순 김춘례 신혜선 김주영 정향란 이영순 김나경 문길순 임소순 윤순옥 박숙자 박난순 여 명 정민호-이서은 나경철-신현식 한영화 권은희 김명철 장유미 임혜연 이민수-김숙희 임혜미 유승환-최아현 조현지 김태운 박찬열 손혜옥 정수환 김지수 양은숙 송길호 이민형 김소라 김지후-이현주 윤태자 김영희 유영석 김승훈-김혜인 한경숙 김창균-임예진 이연균 조부영 이효숙 고진순 채송아 안선희 오유라 안예근 배준서 방주은 안나근 무명15
십 일 조	정윤돈 최신영 최정웅 박범서-김진아 김원일-전인숙 김양순 윤순옥 김경애 김순자 김희권 오신자 김용관-김정순 김영순 임소순 유충현-강공이 정세완-박희영 여준석-양경아 정민호-이서은 김재규-장소녀 이민수-김숙희 고경훈 유영석 최명홍 이세호 조부영 고진순 박지영 최보인 유경형-라종화 최일숙 임근일-양은숙 권은희 배준서 여 명 안나근
감사헌금	정윤돈 최신영 최정웅 김희권 박천재 김재규-장소녀 김경애 최송화 정민호-이서은 오아라 박학규 김용관-김정순 김미자 양경심 정향란 김지후-이현주 이은숙 한경숙 박영인 이계옥 조부영 최신혜 유경형-라종화 박동영-최진희 고진순
심방헌금	지복순-임상식-임민재
차량헌금	정윤돈 박동영-최진희
일천번제	최신영
선교헌금	정윤돈 최신영 최정웅 정민호-이서은 오신자 김재규-장소녀 임소순 임영순 이은희 김용관-김정순 유승범-주은경 조현지 정수환 방주은 김순호 김승훈-김혜인 오국환 고진순 박동영-최진희 여준석-양경아 유경혈-라종화 최일숙 임근일-양은숙
치유센터	정윤돈 정민호-이서은 정수환 고진순 (*2026년도 총계 594,000원) (*2025년도 총계 5,009,000원 *지출총계 500,000원)
헌당헌금	정윤돈 최신영 최정웅 전정아 정민호-이서은 오신자 임소순 임영순 김용관-김정순 김재규-장소녀 유승범-주은경 조현지 방주은 정수환 김순호 김승훈-김혜인 김창균-임예진 오국환 고진순 박동영-최진희 여준석-양경아 최일숙 임근일-양은숙
장학헌금	정윤돈 최신영 최정웅 정민호-이서은 유승범-주은경 정수환 임혜미 김순호 김승훈-김혜인 고진순 박동영-최진희 여준석-양경아 유경형-라종화 임근일-양은숙
어학연수	정윤돈 정수환
RUTC헌금	정윤돈 최신영 이현규-김수진 정수환 김승훈-김혜인 고진순 박동영-최진희 여준석-양경아 임근일-양은숙

* 이름이 누락되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2026. 10. 28.~ 2026. 11. 3.)

헌당헌금 (2026년도 합계)	127,335,285원	차량 구입헌금 (2026년도 합계)	940,000원
참사랑 RUTC헌금 (2026년도 합계)	12,747,172원	어학연수헌금 (2026년도 합계)	2,397,000원

헌당대출잔액 : 일본법화 444,000,000엔 (한화 3,951,600,000원 / 100엔환율=890원기준)

일반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13-769840 참사랑교회 헌당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22-072886 참사랑교회
선교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33-576822 참사랑교회 장학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33-576780 참사랑교회
참사랑 RUTC : 신한 100-035-010731 참사랑RUTC

2026년 구역조직

- 교구장 : 정윤돈 목사
- 1교구(1~3지역) 담당교역자 : 박범서 목사 | 총무 : 이미자 장로

지역/전도인	구역(담당장로)	구역장	권찰	구 역 원 (※ 밑줄은 미션 홈 이상 훈련수료자)
1지역/최진희	①요금1(오국환)	박인자	최진희	최정웅 전정아 **박동영** **최진희** 박서윤 박찬열 배형석 박인자 배영광 정우연 배고은 박점순 이신순 최일숙 조영희 장혁준 **최봉식** 최산주 최해나
	②요금2(박동영)	김주영	주은경	정윤돈 최신영 정예승 정예준 정예건 이재풍 김주영A 이승현 이지훈 **유승범** 주은경 유현나 유현상 유준상 유민상 주종성 박학규
2지역/이미자	③방이1(이수용)	양경아	유경선	**이수용** **이미자** 이채은 **여준석** 양경아 여 명 여수아 정철호 유경선 이진수 정동주 정동훈 김홍기 문길순 김갑례 임상식 지복순 박서이 박필수 박소현 박경구 박도경 박세연 남호정
	④방이2(최칠규)	홍미경	이미자	최재혁 홍미경 최욱현 최모연 박은진B 윤소현A 윤대현 윤차현 박현우 김정순A 최종헌 김명자 김성배 강길자 김윤우
	⑤천호(유경형)	라종화	홍경아	**유경형** **라종화** 이대수 홍경아 이지오 이태이 홍형표 유승환 최아현 유나림 유하림 이영숙 박철남
3지역/김금남	⑥잠실(이은숙)	조부영	김소라	조부영 양승현 양승우 황규철 김소라 황다인 황세희 박광현 **조영주** 박근혜 박지혜 박지영 최보인 권순민 최형란 권유나 권유빈 이효숙 채송아 채정우 **전민식** 구순자 정재홍 전혜진 정리아 조현지 오은사 권구현 김미자
	⑦송파(임근일)	양은숙	박승숙	**김금남** 김수형B 김수민 **임근일** 양은숙 임혜연 유영석 박승숙 유세정 유진아
	⑧하남(김경희)	김영희	한영화	이현규 김수진 이시은 **김경희A** 현백규 김현아 김영희 황혜주 이준영 강정자 **최칠규** 한영화 최종인 손병순 김준석 윤수연 김지유 조수영 홍주원 최영국 김윤지 최리오 심성지 심성하 유지열 송수민
서울·경기		㉔박범서 목사		장미선 김희서 김원준 김유진 문예은 최한나 최한별 권우현 정민진 김대욱 박유신 김혜원 김기채 고정호 고정협 스모모 강지우 전영종 김유나 이재준 이시연 손완식 양은예 손보미 손재현 손보국 이정택 이은선B 이가원
		㉕심한결 목사		권세미 원철호 홍정아 강예은 강예림 김형준 **박현주** 김민규 최영희 김정남 김효경 권영숙 구성하 김수정 김성애 이아름 에 코 박준영 박준은 박지유 김미선 이혜승 이혜준 이현우 이은옥 조유연 조웅연 이재윤 민희선 김가원 김도원 **도상철** **채희은** 도성웅 김경현 강소영 김유은B 김소은 **김석재** 김정길 박순연 박준민 황인선 박수진 박수정 이종관 서숙정 이주한 이지한
		㉖이현규 목사		윤지은 최명지B 고대중 박형진 류성미 박하능 박하론 안진성 문경화 안서윤 안채윤 안신영 신한수 이은주B 신민승 신연서 한경숙 변지영 박형석 강둘봉 박요셉 구황경 이선미 구아라 구지후 이기덕 김복란 이광훈 김명화 최민지 최민기 천 용 이유림 최지원 조현우 이채원 **여상훈** 노선희 여준후 여선후 박은선 **김준일** 최숙영 김하은 김유은A 김은성 송형자 정화영 한주아 한태빈 **최영철** **최후순** 최요한 최지은 최두영 오주희 최하랑 최하율 최하린 김해수

※ 위 명단은 각 구역원과 기도대상자의 명단입니다.

2026년 구역조직

- 2교구(4~6지역) 담당교역자 : 심한결 목사 | 총무 : 양경심 장로 - 3교구(7~9지역) 담당교역자 : 이현규 목사 | 총무 : 최신혜 장로

지역/전도인	구역(담당장로)	구역장	권찰	구 역 원 (※ 밑줄은 미션 홈 이상 훈련수료자)
4지역/김계자	⑨오금3(정세완)	박희영	임경미	**정세완** 박희영 **김 헌** 임경미 김 수 김혜린 **정연규** 이은숙 김춘례 임수미
	⑩오금4(주재진)	신혜선	권혜경	김계자 **주재진** 권혜경 주예진 신혜선 유연정 유지훈 임경순 양순옥 임선규 김태운 김금녀 이종남 김영순
	⑪오금5(최명홍)	이계옥	최송화	**최명홍** 이계옥 최송화 정수환 정재환 전성배 박은서 김영중 김준영 김민성
5지역/양경심	⑫올림픽1(김헌)	장길순	이영순	유윤식 장길순 유효진 유윤재 이영순 박준석 설정화 박수환
	⑬올림픽2(여동훈)	정년영	김정연	정년영 김정연 한공순 **허경열** 허지선 박성진 박서연
	⑭올림픽3(양경심)	이현주	양경심	박염재 **양경심** 박주은 박주영 김수형A 이현주 김지후
6지역/김순호	⑮강남(김순호)	손혜옥	임소순	김원일 전인숙 김구영 빌 마 김의찬 김주찬 안경호 **김순호A** 안도근 안나근 안예근 손혜옥 김주원 김혜원 임소순 천혜숙 강현자 김나경 김희경 김경애 이정민 조연희 조재형 조현근 고경훈 김일호 김두원 김세희 안선희 안민희 안현희 최영혁 김현진 박진수 윤성휘 권혁복 조동범 이세호
	⑯구리(유승범)	이정미	임영순	이상구 이정미 이진형 최가은 이민형 이주형 전진 임영순 임동영 장유진 이정수 장유선 이진우 김명철 장유미 김지유 전은정
7지역/이명	⑰오금6(배승찬)	이명	임예진	박범서 김진아 **배승찬 이 명** 배준서 배현서 김창균 임예진 김하윤A 김재승 윤순옥 구자성 송영희 이명재 구윤진 이미화 김지영C 김민영 김근호 백순범 윤혜영 백소율 백하율 박환희 오상수 원태연 원아연 김희권 김승훈 김혜인 김지아 김도연
	⑱오금7(이명)	최혜숙	홍명숙	**김영진** 최혜숙 김시언 김시아 최아영 홍명숙 손가을 손하늘 오신자 니콜라 박경아 라 나 아멜리 김순자 이병부 김정열 김윤태 박숙자 도정호 유경순 도규철 이연균 도지민 김선희 김순호B 이 하 안지용 안수현 박천재
	⑲오금8(여준석)	고진순	이선아	**오국환** 이은희 오유라 오아라 유제숙 고진순 방주은 정문철 이선아 정유호 정은유 김창대 이정임 김아리 김아영 위준승 문정민 김애경
8지역/최신혜	⑳문정장지(라종화)	최신혜	이가예	송길호 **최신혜** 송은수 송영민 송지수 신성원 이가예 신현욱 신지유 **장영균** 송미경 장현규 장현우 장이준 장이서 장성순 박난순 장하영 장하은 민경환 권은희 나경철 신현식 나주희 나종훈 박진순 박주봉 박주승 장소녀 김지웅 김정섭B 유정빈
	㉑가락(정연규)	백소정	정선희	**여동훈** 백소정 여현지 여종원 여은성 주철우 정선희 주이서 주이준 주이언 이용도 최재경 이다연 이아연 정민호 이서은 노은현 손상현 **이군재** 이순근 이수산나 허가이 임혜미 송창범
9지역/박영인	㉒거여마천(최진희)	박영인	이순덕	**신승훈 박영인** 신동윤 이정윤 이순덕 이영경 호민수 정은숙 박지현 이 석 김재우 유충현 **강공이** 유승호 전주율
	㉓강동(신승훈)	정향란	김숙희	심한결 정지혜 심주언 심지언 심승언 정향란 이민수 김숙희A 이하연 이하준 김은영 차영민 차승민 장영호 소선미 함조식 소숙현 함재이 오인태 김지영B 오하림 오하윤 **김선옥** 김지수 김성재 윤태자 정창호 김미현 정승주 정승우

레위기의 율법들과 단번에 끝낸 그리스도

–복음으로 여는 레위기–

레위기 11:45, 히브리서 9:12

들어가는 말씀 – 케냐 선교현장에서 발견한 세계복음화의 응답

지난 10월 18일부터 28일까지 열흘 동안 케냐 선교캠프를 다녀왔다. 처음에는 케냐에 갈 생각이 없었는데 강익수 목사님이 강하게 함께 가자고 권하여 가게 되었다. 가보니 김동길 선교사님의 둘째 며느리가 한국 교회의 렘넌트로, 간호사이고 일본어도 잘하는 사람이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 아프리카 선교현장으로 결혼하여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포럼을 했다. '대단한 결단이다. 정말 세계복음화를 마음에 품은 렘넌트의 결단이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교회도 오랫동안 김동길 선교사님의 케냐 제자 열 명 가까이를 후원했다. 그 제자들이 성장하여 현장 곳곳으로 퍼져 나갔고, 약 80개 교회로 이어지는 사역이 있었다. 이번에는 아프리카 약 10개국에서 목회자와 지도자 60명 정도가 모여 말씀훈련을 받았다. 그중에는 '여호수아 제네레이션'이라는 후대 관련 단체의 지도자도 있었다. 전 세계 약 240개국에 연결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아프리카 대표, 동아시아 대표, 케냐 대표 등 여러 지도자가 왔는데 처음 복음훈련을 받으면서도 참된 제자의 모습이 보였다. 사모님과 지도자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비행기를 열 시간 타고 경유지에서 일곱 시간 기다린 뒤, 다시 다섯 시간쯤 날아가는 긴 여정이었다. 도착 다음 날 유치원 졸업식이 있다기에 잠깐 참석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점심이나 화장실에 갈 시간도 없이 네 시간이나 계속되었다. 언제 끝나는지도 몰라 힘들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식도 이렇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유치원 졸업식만 특별히 성대하게 치른다고 했다. 후대를 소중히 여기는 현지 문화를 체험했다. 선교사님은 이제 일흔이 넘었지만 두 아들이 사명자로 성장했고 두 며느리도 현장에 함께하고 있다. 첫째 며느리는 건국대학교 영문과 출신으로 영어를 잘하고 현지에 간 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스와힐리어까지 능숙하게 한다고 했다. 손주들도 태어났고 둘째 며느리는 이번에 임신한 상태였다. 그러니 앞으로 의과대학이나 병원도 세우고 후대들이 아프리카 전체를 살리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사람의 선교사에게서 끝나는 사역이 아니라 자녀와 손주에게까지 이어지는 사역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핵심 나라별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팀을 만들자고 포럼했다. 이번에도 우리 교회가 200만 원을 후원했고 왕복항공료까지 경비가 많이 들었다. 이런 방식으로는 아프리카 전체를 감당하기 어렵다. 각 나라의 지도자가 거점에 모이고 경비를 분담하며 공항 근처에서 핵심제자들을 집중훈련하는 방안을 이야기했다. 이번에는 수백 교회를 책임지는 총회장들도 참석했다. 그분들을 훈련해 각 나라로 확산시키고 한국에도 초청하자는 것이다. 영상처럼 아이들은 찬양하며 유치원 졸업식을 축하했고 부모들도 함께 예배드렸다.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춤추는 모습을 보며 K-pop을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 말씀은 이번에도 이중통역으로 전달되었다. 현지 지도자들은 영어와 스와힐리어, 자기 부족의 언어까지 세 가지 이상을 구사했다. 십여 년 전, NGO법인을 만들었던 메리, 후원했던 지교회와 의대생들, 여러 렘넌트를 다시 만나며 아프리카의 희망을 보았다. 끝나고 선교사님 부부와 1박 2일로 사파리를 다녀왔다. 자연을 보며 아담과 하와가 처음 살던 모습이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했다. 길이 새로 정비되어 이동하기 편해졌다. 현지에서는 학교가 1~2월에 시작하며, 우리가 방문한 지역은 시원해 말라리아가 없다고도 했다. 그런 설명을 들으니 감사했다. 의대생들을 만난 뒤에는 근처의 12층 건물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았다. 선교현장의 위험도 생각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심에 감사했다. 여러분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기 바란다.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응답이 어느 먼 나라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후대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응답이 되기 바란다.

서론 – 구원받은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는 레위기

오늘 본문은 레위기이다. 출애굽기가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면 레위기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했고 홍해의 기적도 보았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그 안에는 여전히 애굽에서 형성된 불신앙과 불평, 부정적인 생각, 게으름과 핑계, 남 탓과 자랑, 교만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했다. 그래서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도 불평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613가지 율법을 비롯하여 제사와 절기, 성막과 예배의 제도를 주신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한순간 말씀을 놓치면 다시 나의 이익, 의식주, 돈, 욕구와 중독이 중심이 되는 오래된 체질로 돌아가기 쉽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 제사와 예배의 은혜를 누리도록 제도를 주셨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과 기도, 예배와 묵상, 절기와 훈련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선교에서 강익수 목사님에게 배웠다. 차에 타면 계속 말씀을 중얼거리기에 무엇을 하는지 보니 창세기 1~2장, 하나님의 형상과 창조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다. 이동 중에도 말씀을 묵상하며 24시간 기도했고, 강의를 마친 저녁에는 제자리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운동했다. 예전보다 얼굴이 좋아 보여 무엇을 했는지 물었다. 꾸준한 말씀묵상과 운동으로 영과 육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며 감사했다. 우리는 주일예배 한 번 드리고 일주일을 그냥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작심삼일이 아니라 하루만 지나도 다른 생각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묵상과 예배 속

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것을 인간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가? 우리는 육신을 이길 수도 없고 사탄과 세상을 자기 힘으로 이길 수도 없으며 스스로 온전히 거룩해질 수도 없다. 어떤 분은 예배 중 딴 생각을 열다섯 번 했다고 한다. 나는 그것도 적은 편이라고 했다. 밤새 화투나 게임을 하면서도 예배 한 시간에는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이다. 나는 학창시절 예배에 집중했던 기억이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도 어렵다. 말씀과 예배가 송이꿀보다 더 달아야 한다. 노래방이나 맛있는 음식은 잠깐의 즐거움이지만, 말씀과 예배는 영적인 힘과 참된 치유를 준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이 이룰 수 없었던 율법의 요구를 단번에 완성하셨다는 사실이다. 레위기의 제사와 정결법, 생활규범과 절기는 거룩한 백성을 세우기 위한 장치였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 사역을 가리키는 그림자이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참된 희생제물이며 참된 대제사장이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아야 한다. SNS에 다녀온 나라 국기를 일흔~여든 개나 올린 사람을 보았다. 많이 여행했지만 결국 어려운 형편인 듯했다. 여행하고 사진만 찍고 돌아오면 무엇이 남겠는가? 단 하루를 살아도 생명을 살리는 목적을 가져야 한다. 돈이나 시간이 없다는 것보다 먼저 언약을 향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번 케냐에는 선교사님이 35년 가까이 헌신하며 준비한 제자들이 이미 있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면 되었다. 강익수 목사님은 그동안 받은 훈련을 현장에 모두 쏟아놓자며 쉬지 않고 메시지를 전했다. 공항에서는 선교사님들이 비행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선교경비도 부족한데 무슨 비행기인가 생각했지만, 2주 동안 자동차로 하루 스무 시간씩 비포장도로를 달려 사역했다는 말을 듣고 이해했다. 선교사님들이 비행기로 여러 현장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산업인의 응답이 있기를 기도했다.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절을 지나 크게 발전한 것도 감사하다. 그러나 그 축복을 좌파와 우파, 여당과 야당, 지역 간의 싸움에 소모하지 말고 세계복음화에 사용해야 한다. 우리 교회와 교단, 한국교회가 그 주역이 되기를 기도했다. 경제와 전문성을 세상 자랑과 의식주 걱정에만 사용하다가 인생을 끝내서는 안 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까지 완전히 해결하셨다. 이 복음을 확실히 붙잡고 전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문을 여신다. 아르메니아에 가도 기다리는 제자들이 있었고 아프리카에도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여러 민족과 나라, 피부색과 문화가 달라도 이 복음으로 모두 살려야 한다.

1.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주신 절대망대

1) 첫 번째는 다섯 가지 제사 제도이다

(1) 번제 첫 번째는 번제이다. 번제는 제물 전체를 불태워 드리는 제사이다. 이것은 원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제사이다. 제물을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온전히 불사르는 것이다. 이번 케냐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서 번제가 생각났다. 연세가 일흔이 넘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은데 아프리카 전역을 살리기 위해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정적으로 헌신했다. 현장에 가면서 자신의 삶을 선교에 불사르는 모습이었다. 우리도 세계복음화를 위해 내가 있는 현장과 전문성, 공부와 사업, 가정과 후대를 위해 삶을 불태워야 한다. 공부도 대충, 직장생활도 대충, 신앙생활도 대충 해서는 안 된다. 불신자들도 AI와 빅테크 시대에 자기 분야를 위해 밤낮으로 연구하고 일한다. 복음을 가진 우리가 맡겨진 현장에서 얼마나 집중하며 최선을 다해야 하겠는가?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 선교는 체력이라는 것도 깨달았다. 신학교에서 '체력이 영력이다'라는 말을 들었다. 현지에 오가고 강의하고 이동하려면 건강해야 한다. 몸이 아프면 동행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음식과 영양, 운동으로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 강익수 목사님이 운동과 말씀암송을 지속하는 모습도 배웠다. 잘 보이기 위한 몸관리가 아니라 오래도록 세계복음화를 감당하기 위한 영·혼·육의 관리이다. 예전에 고아원 앞에서 만난 청년이 있었다. 동생을 만나러 왔다는데 학교에 다니지 않았고 가정형편도 어려웠다. 장애인시설에 지낼 방을 마련해 주고 중·고등학교 검정고시와 자격증 취득을 도왔다. 시설에서 일하다 대학에 가고 싶다기에 수능을 보라고 했다. 그런데 시험 날 스트레스를 견디기 어려워 시험장에 가지 않고 여행을 다녀왔다. 다시 대학에 가고 싶다기에 시험도 안 보고 어떻게 가겠느냐고 꾸짖었다. 그런데 근처에 산업대학이 생기고 직장인에게 야간 진학의 길이 열렸다. 우연히 알게 된 교수님을 통해 사회복지학을 공부했고 석사와 박사과정까지 마쳐 박사가 되었다. 지금은 장애인시설 원장으로 일하며 결혼하여 자녀도 셋이다. 명절이면 지금도 인사하고 선물을 전한다. 세상 방법이 아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 생을 드리길 바란다.

(2) 소제 두 번째는 소제이다. 소제는 고운 가루나 곡물로 드리는 제사이며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가 있다. 우리는 삼시 세끼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 한국도 보릿고개를 넘긴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지금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나라가 많다.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도 불평하고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감사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언제 감사하고 언제 세계복음화를 하겠는가? 우리 어머니는 여러 사람을 도우며 많은 빚을 지는 어려움 속에서도 늘 감사하고 기뻐했다. 문제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기다리기만 하다보면 죽는 날까지 감사할 시간을 갖지 못할 수 있다. 건강이 좋아지면, 빚이 해결되면 감사할 것인가? 그리스도로 결론 났다면 지금 감사해야 한다. 조건이 힘들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이고 더 큰 응답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질병이나 경제문제를 만났을 때 눈에 보이는 문제만 걱정하지 말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삼층천의 은혜를 이야기했듯, 그 문제가 나를 짓누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미래가 더 분명히 보일 만큼 기도해야 한다. 요셉과 다니엘과 바울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언약을 붙잡았다. 무조건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주는 미래를 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다. 나도 케냐에 가기 전에는 염려했지만 도착하니 소중한 제자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더

큰 응답을 주실 이유를 발견하며 감사했다.

(3) 화목제 세 번째는 화목제이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교제하는 제사이다. 화목제에는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가 있다. 감사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이고, 서원제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따라 드리는 제사이다. 낙헌제는 특별한 조건이 없더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제사이다.

(4) 속죄제 네 번째는 속죄제이다. 자신도 모르게 범한 죄와 부정함과 허물을 속하기 위한 제사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신분과 지위에 따라 제물이 달랐다. 높은 지도자일수록 자신도 모르게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잘못을 범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큰 힘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책임이 큰 사람일수록 더 겸손하게 기도하고 회개하며 헌신해야 한다. 높아질수록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5) 속건제 다섯 번째는 속건제이다. 도둑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준 경우에 그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이다. 피해를 보상하고 상대방과 화해하는 일이 함께 있어야 했다. 단지 제물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바로잡는 것이다. 오늘날 법에도 배상과 책임에 대한 원리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는 다섯 가지 제사가 있다. 소제는 곡물을 드리는 제사이고, 다른 피의 제사에는 희생제물의 피가 있었다. 중요한 것은 그 피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킨다는 사실이다. 구약의 제사 현장에는 제물의 피가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우리의 삶도 언제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보혈과 복음을 바라보아야 한다. 사람을 보며 '너는 이것이 틀렸다'고 정죄하는 체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선악을 판단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라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라고 부름받았다. 육신의 눈에는 결점이 먼저 보이지만 복음의 눈에는 그 사람을 살릴 길이 보인다. 제사방법도 네 가지가 있다. 화제는 불로 태우는 것으로, 오늘의 적용에서는 뜨겁게 기도하고 집중하여 예배드리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 요제는 제물을 흔들어 드리는 것으로 몸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와 연결했다. 거제는 제물을 높이 드는 것으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말했고, 전제는 피를 뿌려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그리스도의 보혈과 복음이 충분히 선포되는 합숙 같은 예배에 연결할 수 있다. 지금은 양과 소를 잡아 화제나 요제를 지내는 시대가 아니다. 수요예배와 금요예배, 부흥회와 합숙, 여러 집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적인 예배를 드린다. 구약시대에는 제물을 수없이 잡고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것을 끝내셨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복음을 선포하는 예배를 드리면 된다.

2) 두 번째는 일곱 가지 절기제도이다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또 다른 망대는 7대 절기이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세 가지만 주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일곱 절기가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절기이다.

(1) 유월절은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재앙이 넘어간 출애굽 사건을 기념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구원을 의미한다.

(2) 무교절은 유월절 이후 이어지는 절기로, 출애굽 이후 홍해를 건너기까지의 고난과 무덤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절기이다.

(3) 초실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이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안식일 다음 날, 곧 주일과 연결되는 절기이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일의 의미를 강조했다.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 나는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건강 관련 시설을 방문해 의사와 대화하고 지옥과 구원에 대한 교리를 물어본 일이 있다.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주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노아 방주의 여덟 식구와 난 지 팔 일 만에 받는 할례, 안식일 다음 날을 연결하여 부활의 주일을 설명했다.

(4) 오순절은 초실절 이후 오십일째 되는 절기이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고, 신약의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오순절 사건으로 이어진다. 성령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된 날이라는 것이다.

(5) 나팔절은 일곱째 달 첫날의 절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한다.

(6) 대속죄일은 일곱째 달 열흘의 절기로, 속죄와 마지막 심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사실을 상징한다고 했다.

(7) 초막절 또는 수장절은 일곱째 달 열닷새부터 지키는 절기로, 광야생활을 기억하고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절기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모여 영원히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의 축복을 상징한다.

이 모든 절기는 백성이 반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언약을 붙잡도록 주어진 것이다. 지금은 구약의 제사를 그대로 반복하지 않고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성탄절 같은 복음적인 절기를 지키며 예배한다. 우리 전도협회에서는 세계선교대회, 세계산업인대회, 세계렘넌트대회라는 세 가지 큰 성회도 소중히 여긴다. 연말을 앞두고 찬양과 여러 행사를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적인 절기의 흐름 속에 있다. 구약에는 비싼 소와 양을 제물로 드렸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기도 했다. 지금은 그 제사를 반복하지 않지만 헌신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감사로 드린다. 절기 며칠만이 아니라 365일, 24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고 소리만 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주님, 이 문제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감사와 기쁨이 생길 수 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

3) 세 번째는 성일과 거룩한 안식의 해이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과 월삭,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를 주셨다. 이는

안식과 해방을 기억하게 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언약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장치였다. 안식의 제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강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바라보게 한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복음적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의 축복을 누려야 한다.

2. 오늘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절대망대

1)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절대망대이다 제사와 율법, 절기나 선행으로 인간이 완전히 거룩해질 수 없다.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절대망대이다. 아프리카에서 만난 지도자들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여러 언어를 하며 공부도 많이 한 분들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오셨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었다. 지식이 많아도 그리스도가 정리되지 않으면 현장에 복음의 답을 전하기 어렵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복음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 한국교회와 미국, 유럽의 교회가 복음을 놓치고 쇠퇴하는 현실을 보면서 다시 그 현장까지 살려야 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스스로를 자랑하거나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야 한다.

2) 참 왕·참 제사장·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절대망대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참 왕이시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신 참 제사장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이시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제물과 다른 제사장이 우리의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3) 7망대·7여정·7이정표가 절대망대이다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는 기도와 훈련의 시간표가 있다. 먼저 7망대는 ① 성삼위 하나님, ② 하늘보좌의 능력, ③ 과거·현재·미래의 세 시대, ④ 오력, ⑤ 공중권세 잡은 흑암을 꺾는 능력, ⑥ 하나님이 주신 CVDIP, ⑦ 금토일시대의 세 가지 뜰이다. 이것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야 한다. 7여정은 ① 성삼위 하나님, ② 열 가지 비밀, ③ 열 가지 발판, ④ 다섯 가지 확신, ⑤ 아홉 가지 흐름, ⑥ 62가지 삶의 훈련, ⑦ 교회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하나하나 훈련받아 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여정이다. 7이정표는 ① 갈보리산, ② 감람산, ③ 마가다락방, ④ 안디옥교회, ⑤ 에베소교회, ⑥ 빌립보교회, ⑦ 로마이다.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붙잡으며 마가다락방의 성령충만을 받아 안디옥과 에베소, 빌립보와 로마로 이어지는 세계복음화의 이정표를 따라가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갈 언약의 광야여정이다.

4) 가장 중요한 절대망대는 교회이다 말씀과 예배, 찬양과 봉사, 헌신과 전도와 선교가 교회 안에 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행동이 교회를 살리는지, 교회를 이용해 내 이익을 얻으려는 것인지 돌아보아야 한다. 교회와 성도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도움 받고 치유받을 시간이 있더라도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내가 어떻게 교회와 성도에게 도움이 될지 생각해야 한다. AI와 과학이 발전하고 사회적인 사상과 제도가 바뀐다고 인간의 모든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복음을 듣고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현장이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야 하고, 우리 모두가 교회를 살리는 방향으로 공부하고 일하며 헌신해야 한다.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교회에서 말씀과 예배를 누리며 세상을 살리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결론

십자가의 희생으로 단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현장을 치유하고, 제자를 세우고, 2375천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참사랑 RUTC현황 (예체능체험교실)

	시간 & 장소	담당자		시간 & 장소	담당자
여행캠프	모집 시	정창호 집사	서예교실	한달 토 10:00, 2층 식당	모집 중
트릭킹체조교실	당분간 운영중지	정수환 집사	스키&스노보드	동계	박찬열 집사
탁구교실	매주 토 11:50, 2층	최혜숙 권사	수묵캘리그라피	1, 3주 토 19:00 2층 식당	김순호 장로
기타클래스	매주 토 14, 17, 19시 4층 당회실	이명 장로	축구&풋살	한달 토 오후	김승훈 집사
트리니티찬양교실	1, 3주 수 14:30 3층 제2렘넌트실	임예진 권사	취미그림교실	1, 3주 토 17:30 2층 식당	김순호 장로
복음영어클래스	매주 토 15:30, 주일 19시 1층 어린이부실	주은경 권사	드럼클래스	매주 토 18, 19, 20시 5층 본당, 1층 비전홀	김승훈 집사
피아노& 기초음악이론	개인별 레슨 진행 4층 찬양대실	이석 집사	WIO스마트팜	비정기적 열린 포럼 진행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정윤돈 010-8033-5678	부목사	심한결 010-8206-2024	협동전도사	전인숙 010-8881-5222
원로목사	최정웅 010-5260-5511		이현규 010-9736-3556	사무간사	박난순 010-9930-5558
부목사	박범서 010-6335-3719	목사(전도캠프)	김양순 010-8328-0132		
전도인	최진희 이미자 김금남 김계자 양경심 김순호 이명 최신혜 박영인				
장로	(시무) 유경형 주재진 이수용 오국환 정연규 여동훈 박동영 최명홍 정세완 신승훈 장영균 라종화 김헌 여준석 김경화A 배승찬 양경심 임근일 최칠규 이은숙 최신혜 이미자 김금남 최진희 박영인 유승범 김순호A 이명 김영진 (협동) 이군재 전민식 강공이 (해외) 최봉식 (은퇴) 이명재 강현자 정년영 송영희 오신자 김선옥 (명예) 박철남 김계자 이정윤				
찬양대	(지휘) 고경훈 (오르간) 이서은 임예진 (피아노) 최신영 최송화 이석 (비올라) 채송아				

예배 및 모임 안내

예배			교회학교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5층, 6층 참사랑홀	태영아부	주일 오후 2:00	3층 제1램넌트실
	2부 오전 11:00		유치부	주일 오전 11:00	3층 제2램넌트실
	오후 2:00	1층, 3층, 5층 (부서별 예배)	어린이부	주일 오후 2:00	1층 비전홀
	오후 3:30				
수요기도회	수 오전 10:30	1층 비전홀	중고등부	주일 오후 2:00	5층 참사랑홀
	수 오후 7:30				
금요심야기도회	금 오후 8:00		대학청년부	주일 오후 3:30	5층 참사랑홀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30	영상			

자체훈련			세계복음화전도협회훈련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새가족훈련	주일 오전 10:20	4층 당회실	산업선교	토 오전 9:00	1층 비전홀
복음소식	주일 오후 12:30	3층 주간보호센터	전도학	토 오전 9:40	
태영아공동육아	수 오전 11:30	3층 제1램넌트실	핵심요원훈련	토 오전 10:30	
어린이사명자	주일 오후 1:00	3층 제2램넌트실	중직자대학원	주일 오후 5:00	
중고기도회	주일 오후 1:40	5층 참사랑홀	초등전도신학원	토 오후 2:00	
집중전도신학원	수시	참사랑교회	청소년전도신학원	토 오후 2:00	참사랑교회

국내외선교지

선교사파송 100명(협력 및 후원기관)

① 심주환선교사(일본 히로시마) ② 배고은선교사(네덜란드) ③ 이종우선교사(일본) ④ 이성국선교사(러시아)
⑤ 황규영선교사(네팔) ⑥ 임호성목사(서울역 노숙자학교) ⑦ 왕선교사(RTS C107) ⑧ 정회권선교사(필리핀신학교)
⑨ 김동길선교사(케냐) ⑩ 서해영선교사(카자흐스탄) ⑪ 문철선교사(팔라완) ⑫ 벤자민목사(인도)
⑬ 서진태선교사(스리랑카) ⑭ 박종혁선교사(후쿠오카) ⑮ 이준형선교사(영국) ⑯ 이광식선교사(프랑스)
⑰ 전경무선교사(필리핀 세부) ⑱ 보바(우크라이나) ⑲ 유영애선교사(워싱턴) ⑳ 이응남선교사(미국)
㉑ 정석왕회장(사회복지사협회) ㉒ 배문성선교사(필리핀 팔라완) ㉓ 사회복지법인 램넌트

군파송자 (4)

[육군] 송영민 나종훈 이주형 안도근

해외파송자 (26)

[미국] 최형란-권순민(권유나 권유빈) 김국한 박석훈 최봉식-최신주(최해나) 강지우 이진형-최가은 정예준
[호주] 박영준-김수미(박윤성 박민성) 박영환 [영국] 박경아-니콜라(라나 아멜리) [네덜란드] 배고은
[일본] 오유라 [인도네시아] 전민식 구순자

교회 역사

오금동과 함께 성장한 교회 |

1960년대 후반, 정부는 서울 전역의 판자촌을 정리하는 정착지 조성 이주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자촌 주민들은 청소차에 실려, 허허벌판이었던 오금동에 버려졌습니다. 한 가구에 주어진 여섯 평의 땅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가난과 고통 속에 살던 이 정착민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남대문교회의 김근숙 권사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군용 천막 하나를 빌리고, 직접 북을 치며 사람들을 불러모았습니다. 이것이 오금동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인 오금중앙교회, 지금의 참사랑교회입니다. 대머리산에 세워진 조그마한 오금중앙교회 성전은, 마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1980년 부임한 최정웅 목사와 함께, 이렇게 지역 사회 속에서 성장해 온 오금중앙교회는, 세계복음화를 마음에 품고 2005년에 참사랑교회로 이름을 변경했으며, 2007년에는 현재의 자리에 세 번째 성전을 지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참된 해답, 참된 사랑인 복음을 굳게 붙잡고, 이 복음만을 말하는 복음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참사랑교회는, 2018년 최정웅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정윤돈 목사를 담임목사로 위임하여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참사랑교회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가입된 건강한 교회이며, 60여년 동안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자라온 토박이 교회입니다.



교회 소개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

참사랑교회는 종교다원주의를 반대하며, 오직 복음만이 온 세상의 해답임을 믿는 교회입니다.

후대운동으로 후대를 살리는 교회 |

많은 후대들이 학교와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희망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참사랑교회는 후대를 살리고 인재를 키우는 것을 첫째의 우선순위로 삼고, 지역 인재 장학사업, 방과 후 활동 및 상담활동 지원과 같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선교로 세계를 살리는 교회 |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류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 세워진 참사랑교회는 창립 이후 계속해서 낙도 선교와 남아시아 선교를 후원해 왔으며, 현재는 일본 히로시마와 아프리카 남수단, 몽골 울란바토르, 필리핀 마닐라, C국 S지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 |

병들고 소외된 이들의 벗이 되셨던 주님을 본받아, 참사랑교회는 지역 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및 송파구와 협력하여 참사랑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행복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참사랑노인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렘넌트 및 사회복지선교국과 협력하여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